나란다 축제, 삼보순례 메타버스로 구현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월 10일 제13회 대회 요강 발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삼보순례에서 발현된 불교 혁신의 정신이 불교계 최대 청소년축제인 '나란다 축제'에서 메타버스로 구현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제13회 나란다축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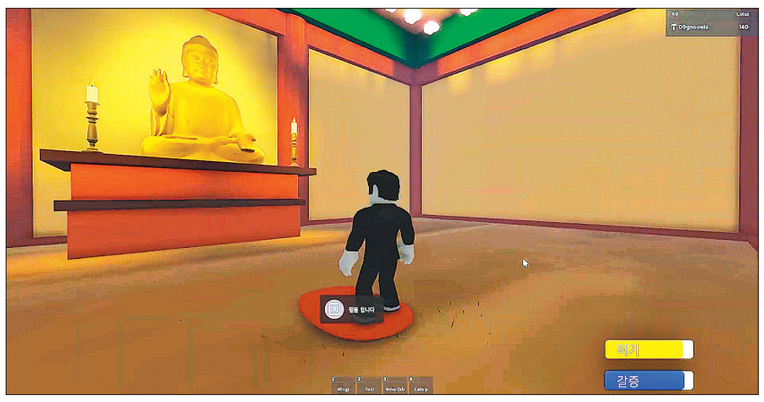
제13회 나란다축제에서는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 △만보가 모여 천리 △불교교리경시대회 △108유튜브 공모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독후감 공모전 등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나란다축제에서 눈여겨 볼 것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한 삼보사찰의 메타버스 구현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가상현실 속 삼보사찰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

로블록스 활용, 송광사 체험 제공
1만보걷기 등 삼보순례 정신 계승
교리경시대회는 줌으로 결선진행

은 12월 10일부터 로블록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샷을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해시태그(#로블록스 #나란다축제 #삼보사찰 천리순례)와 함께 업로드 하면 선착순 108명에게 기프트콘이 제공된다. 현재 송광사 맵이 구현된 상태로, 향후 해인사, 통도


로블록스에 마련된 송광사 법당. 이곳에서 나란다 축제가 열린다.

사 맵 또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정충래 나란다축제 기획위원(동국대 이사)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 일선 학교 교법사와 선생님들과 아이디어 발굴 작업을 했다. 아이들이 훨씬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 삼보순례의 정신을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만보가 모여 천리(삼보사찰 천리순례 함께하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 학생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삼보순례의 자료와 영상을 시청하고, 기간 내 하루 1만보 이상 걷기 후 (인증 어플 무엇이든 가능) '걸음 수 스크린 샷'을 패들렛에 간단한 소감문과 함께 올리면 된다. '만보가 모여 천리'는 11월 15~19일, 11월 22~26일, 11월 29일~12월3일 총3회에 거쳐 진행되며, 회차당 선착순 108명에게는 기프트콘이 증정된다. 또한, 인증이 확인된 참가자 600명에게는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추가 증정된다.

이밖에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란다축제 대표행사인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학교에서 자체예선을 진행하고, 학교당 10~15명의 결선 진출자를 선정, 줌 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결선을 치룰 예정이다.

또 '108 유튜브'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찰 △걷기명상 △나의 꿈 등을 주제로, 108초 내에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파라미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란다축제 공동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조합하여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과 세계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급하겠다"며 "나란다 축제는 단순한 청소년 축제가 아닌 세계일화를 상징한다. 나란다 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많은 이들이 시름을 잊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미얀마 사업 통해 3만여 명 수혜

10일, 재난위험경감 성과보고
5년 간 10억5200여만원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016~2020년 미얀마에서 벌인 재난위험경감 사업을 통해 총 3만921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액은 10억5200여만원에 달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0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라이브홀에서 '2016~2020 미얀마 재난위험경감 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사진〉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 성과소개, 성과 및 교훈,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됐다.

재단 오성근 담당관의 성과소개에 따르면 재단은 5년간 사업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에야와디 주 랍타군 몰레미얀준면 내 54개 마을 27개 학교 총 3만91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교육 및 훈련 활동에는 총 7155명이 303회에 맞춰 참가했다. 대피소 5개동, 대피용교량 8개소, 대피용 도로 4개소 등 17개의 재단 대응 시설물을 건축했다. 사업비는 총 10억 5190만8570원이 집행됐다.

이경신 컨설턴트의 '사업의 성과와 교훈'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김선희 대한적십자사 센터장, 이경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장, 오원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재단이 재난위험경감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화 및 전문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강화 및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활동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을 재단의 인도적 지원 전략 및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단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제18회 대원상 대상에 무비 스님 선정

진흥원, 8일 수상자 발표
다보빌딩서 시상식 개최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8회 대원상 대상에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또 특별상은 출가부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성행 스님, 재가부문에는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주형)과 통일부 홍성란 탈북민 가정체험 교육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려상에는 본지 필진인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2021년 제18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11월 8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원상(大圓賞)은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 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출가 부문 대상자로로 선정된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한국 최고의 강백(講伯)으로 평가된다. 대원상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스님은 승가교육



이 확립돼야 불교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평생의 원력으로 방대한 분량인 전 81권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비롯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천수경〉 등 불교 경전 강설과 불교 저술을 발간해 불교의 가르침을 앞장서 전파했다.

특히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염화실) 개설과 유튜브(소참법문) 등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불자들이 공부와 신행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 적극적인 불교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승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성행 스님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을 비롯해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동련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등 청소년 단체를 이끌며 어린이, 청소년 힐링센터 운영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포교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부분 특별상 수상단체인 한국불교문화원(이사장 이주형)은 불교의 총체적 연구와 올바른 신행관 정립, 한국불교의 해외 선양을 목표로 1974년 故 불연 이기영 박사의 주도로 창립한 후 불교 교육 불사를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자상 구현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홍성란 통일부 교육강사는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2007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이끌어 왔다.

재가부문 장려상 수상자인 강소연 교수는 30여 년간 불교문화재를 연구해 온 학자로, 20년 가까이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하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에게 대상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MZ세대 맞는 불교인성교육법 고민해야"

동국대 종학硏, 11일 '포교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유아~대학생 교육 중심으로
포교 활성화 방안들 논의돼

교육 현장에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1월 11일 교내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유아·청소년·대학생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형준 前 동대부여고 교장은 주제발표한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불교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김 前교장은 윤리·도덕 등 학교 교과목을 활용한 학교 내 인성교육과 명상·염불·다도 등 사찰에서 활용 가능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날 인성교육은 시민윤리와 세계인의 교양과 인격,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윤리 등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불교교단은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맞춰 디지털 교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



나 이후 비대면 사회 맞는 인성프로그램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대표 불교교양강좌인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포교 방안에 대해 김은영 연구초빙교수와 이석환 학술연구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했으며, '자아와 명상' 책임 교수인 휴담·원담 스님도 강좌를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명진 스님이 '육바라밀 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향후 학술대회 의제는 최근 '불교중흥'이라는 불교계의 화두에 맞춰 대상별·주제별로 나눠 시리즈로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